

국내 말라리아 관련 헌혈 제한지역

2021.07.01 기준

여행 및 거주년도	제한지역	
2019년~2021년	인천광역시	강화군
	경기도	파주시
		연천군
	강원도	철원군
	북한	백두산제외 전지역
※ 군인의 경우 경기도 양주시 군복무자		

- * 해당 지역에 거주나 복무(연중 6개월 이상 숙박)시는 **2년간**, 여행(연중 1일 이상~6개월 미만 숙박)시는 **1년간** 전혈헌혈 및 혈소판성분헌혈을 할 수 없으며, **혈장성분헌혈만 가능**
- * 헌혈제한지역 기준 : 인구 10만명 당 말라리아 환자 발생률이 최근 3년간 평균 10명 이상인 지역
- * 매년 말라리아 관련 헌혈제한지역 분류 시, 지역별 전년도 환자발생률 급증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시행 (2012년 혈액관리위원회 결정, 심의안건 2012년-4차-2호)
- * 군인의 경우, 채혈 전 문진 시 예방화학요법(말라리아 예방 및 치료제 복용) 시행여부 확인
특히, 문진 시 경기도 양주시 복무여부 확인 권고
- * 말라리아 관련 헌혈 제한 지역에 말라리아 모기가 활동하지 않는 **11월~3월** 사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체류한 경우 말라리아 병력이나 특이 증상이 없으면 **혈구가 포함 된 채혈을 할 수 있음**